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담임목사 권성범  
 예배반주 김안나  
 미디어팀 김태민  
 협력선교사 양영창, 김창섭

공동체 성경읽기

성경 순서별 성경읽기 8주차

2월의 암송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장 34-  
 35절)

금주의 성경쓰기 | 로마서

19일(월) 롬 7:1-4  
 20일(화) 롬 7:5-8  
 21일(수) 롬 7:9-12  
 22일(목) 롬 7:13-16  
 23일(금) 롬 7:17-20  
 24일(토) 롬 7:21-23  
 25일(주) 롬 7:24-25

예배안내

주일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교회
어린이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소예배실
청소년모임	매주 주일 오후 1시	청소년부실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교회
중보기도회	매주 주일 오후 1시	교회
토요새벽기도	매월 첫 주 토요일 새벽 6시	교회/온라인
성경아카데미	지정시간	교회/온라인
목장모임	매월 정한 시간	교회/지정장소

예배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찬교
4일	김성실	류성주	여선교회
11일	김영순	임혜영	류성주
18일	김준희	오세봉	여선교회
25일	임혜영	권용미	김영순

2월 목회일정

3일(토) 온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10일(토) 구정  
 14일(수) 재의 수요일  
 18일(주) 사순절 첫 주일(온가족 한마음예배, 주의 만찬)  
 (장라엘0206, 오세봉0212, 임혜영0213, 이광배0227)

2월 11일 헌금통계	
주일헌금	322.00
십일조헌금	620.00
감사헌금	360.00
선교헌금	40.00
기타헌금	0.00
합계	1,342.00

www.edkbc.org



에드먼튼한인침례교회  
 Edmonton Korean Baptist Church

2024년 교회 포어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라 (행5:42)

예배와 삶을  
 복음과 세상을  
 세대와 세대를

있다

주님을 전심으로 믿어 헌신하고,  
 삼으로 믿음으로 증명하며,  
 신앙의 큰으로 자서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1987년 1월 24일

2024년 2월 18일

오후 2시  
 공동체 성경읽기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요한복음 8장  
 John 8

• 경배와 찬양  
 Paise and Worship

은헤로다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늘보좌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8편 1절-5절  
 Psalms 8:1-5

• 찬송  
 Hymn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대표기도  
 Prayer

김준희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5장 12절-21절  
 Roman 5:12-21  
 다같이

말씀선포  
 Sermon

그 한 사람 때문에  
 권성범 목사

주의 만찬  
 Holy Communion

교회소식 및 성도의 교제  
 Annoucement and Welcome

Peace be with you

• 파송의 노래  
 Praise Song

오직 예수  
 No other Name

• 축도  
 Benediction

권성범 목사  
 Rev. Kwon

01.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02. 가정예배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고, 프린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03. 기도회  
수요기도회는 저녁 7시에, 중보기도회는 주일 오후 1시에 모입니다.

04. 사순절(2월 14일-3월 30일)  
사순절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순절 묵상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14-15절)

하나님께서서는 그 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과 씨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고 기억하려는 몸짓을 끊임없이 북돋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처럼 가벼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적인 생각이나 자기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은총의 절대성입니다. 이 두 과정을 거쳐 우리는 가벼워지고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며, 은총을 누릴 만한 겸손한 그릇이 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우리가 주께 바라는 모든 것을 대뜸 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겸손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견고한 진과 같던 자아가 그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가벼워질 때 우리는 경쾌하고도 자유롭게 모든 상황을 마주 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일치하는 길을 7 공방이라는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방, 초신자의 상태가 머무는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다섯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 1) 겸손하라
- 2) 매일 매일을 충실하게 살라라
- 3)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 4) 질서있게 일을 해라
- 5) 진심으로 기도하라

깃털처럼 가벼워지십시오, 가벼워지면 바다 한복판에서 물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바다 같은 세상에서 가볍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사랑과 기쁨, 이 모든 것을 두 손으로 고이 받으며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었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준비되어 있고 괜찮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 김화영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로마서 5장 19절-25절

-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3)모형이라
-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룸이니라
-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 그 한 사람 때문에